

법무보호대상자의 진로자본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

박혜경*, 한순옥, 박시연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A Study on the Recovery Process of Career Capital for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Hye-Gyeong Park*, Sun-Ok Han, Si-Yeon Park
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약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들은 반드시 진로자본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들의 진로적응 실패는 개인은 물론 사회안전망에 불안함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로자본 회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10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진로자본 손상에 따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요건 등 진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대상자들은 수감생활로 진로자본 손상을 경험하며,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자신감 결여와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사회적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고용주, 가족,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며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 진로 성공경험 등이 일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It is necessary for inmates released from prison to recover their career capital in order to function normally in society. Failure to adapt to the society may not only make them unhappy but could also aggravate social safety nets. Therefore, it is critical to examine the recovery of career capital. For this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10 rehabilitation recipients who were supported by Korea Rehabilitation Agency. For qualitative analysis, several career topics were analyzed, such as obstacles in recovering career capital, efforts in overcoming these obstacles, what is helpful for them to overcome the obstacles and what is required for them to adapt to the career life and others. Analysis results found that the rehabilitation beneficiaries suffered losses to their career capital due to their incarceration, suffered from the loss of pride and became despondent in the process of recovery of career capital due to the negative social perception toward their social self, fear of social stigma and devaluation of themselves. In addition, the fear of possible negative evaluation was a critical factor in making their social activities more challenging. Conversely,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in the recovery process of career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In particular, emotional support from spouses, employers, family members and friends are the most positive factors. Concerning efforts at adapting to careers, it was found that an active, leading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career were critical, showing that positive evaluation and recognition in family and social relations and the experience of success in the career were positive elements in enhancing a sense of pride. In summary, it was found that in the recovery process of career capital, dysfunctional beliefs had a negative effect, while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covery of career capital.

Keywords : Career capital, Dysfunctional belief,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Recovery Process,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Hye-Kyong Park(Kyonggi Univ.)

Tel: +82-10-3373-6723 email: ahnpark1227@naver.com

Received October 20, 2017

Revised (1st November 15, 2017, 2nd November 23,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1. 서론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과 직업생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유·무형의 진로자본(career capital)을 축적하며 평생을 살아간다. 전생애를 걸쳐 축적된 진로자본이 어느 순간 감소되는 시기에는 인간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갑자기 진로자본이 손상된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진로자본이 갑자기 손상된 집단의 대표로는 출소자를 들 수 있다. 출소자들은 본인의 형기만큼 외부세계와 차단된 수용시설에서 이제껏 본인이 쌓아 온 진로자본이 손상되며, 출소 후에도 격리되었던 시간만큼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2016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5년 형법범죄자 중 30.6%가 초범자이고 69.4%가 재범자였으며, 28.5%가 전과 6범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 이내에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재복역률은 22.2%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출소자들이 사회적응 실패를 보여주는 극명한 척도로 사회복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취업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김대권·정우일, 2010; 최병욱·김선희, 2012). 신성만(2014)은 보호대상자가 출소 후 실직과 그 이후 재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재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사회적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취업이기도 하지만, 취업유지 과정 또한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운호·김대권, 2007).

또한, 출소자들은 급격한 손상 상태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두려움, 자신감 결여, 우울 등 인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지적 취약성 요인인 역기능적 신념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상황의 위협 정도를 과대평가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역기능적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심한 부적응을 나타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Beck, 1985; Clark & Wells, 1995; 김상아, 2009, 재인용). 이렇듯 역기능적 신념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대표적인 환경 변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구체적인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보적 지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게 한다(Cohen & Hoberman, 1983; 정지은, 2013, 재인용). 이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순우, 2014).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는 진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정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법무보호대상자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갱생보호사업(更生保護事業)은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이를 원조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갱생보호사업은 형의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지권을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조직으로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을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67조에서 70조까지의 규정으로 민간인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보호의 방법으로는 ① 숙식제공, ② 주거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의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등으로 규정하였다.

기존의 출소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수형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수형자의 생애진로분석 및 취업제한 장벽, 수형자의 재범경로 분석, 교도소 내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등의 주제로 연구되었다(주민희, 2004; 김나영, 2009; 남상철, 2009; 장선숙, 2010; 배임호, 2013; 서혜석, 2008). 출소자에 대한 연구로는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 재범방지사업과 관련된 정책제안, 직업유지에 미치는 요인 등이 연구되었다(장완영, 2009; 김혜미, 2016).

2.2 진로자본

진로(career)란 직업과 관련된 용어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생애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진로는 직업보다 더 현대적이며 더 포괄적으로, 다른 산업이나 조직에 있는 비슷한 직업들의 집단을 말한다. 진로는 협의의 의미로 직업과 같이 쓰이며, 개인이 일생동안 추구해 온 일의 총칭을 의미한다(김병숙, 2010). 자본(capital)이란 전통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이라고 보았다(이준웅 외, 2005). OECD는 자본을 ‘개인에게 통합되어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복지창출을 촉진시키는 기술, 지식, 숙성 및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조귀분, 2016).

진로자본이란 진로분야에 있어 가치가 있는 자본의 독특한 형태로 우리나라 진로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는 개념이다. 1994년 발행된 Defillippi와 Arther의 ‘경계 없는 진로 통찰력 기반의 역량(Boundaryless career competency based perspective)’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등장했으며, 자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용어를 확장시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진로자본을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의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구분하였다(Bourdieu, 1986; Mayrhofer 외, 2004; 정용주, 2009; 최은영, 2014 재인용). 경제적 자본은 자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화폐로 전환이 가능한 자본이다. 경제적 자본은 쉽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그리고 상징적 자본으로 변환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결과 집단의 소속에 기반한 상호 인식관계와 지인관계, 자원들을 포함한다. 문화적 자본은 가족에 의해 전수되거나, 교육체계에 의해 생산된 지적 자격의 총체를 의미한다(Iellatchitch 외, 2003; 최은영, 2014).

선행연구에서의 진로자본은 주로 진로자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ourdieu, 1986; Mayrhofer 외, 2004; Itellatch, 2003; Defillipi & Arther, 1994; Duberley & Cohen, 2010; Colakoglu, 2011).

진로자본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본과 개인역량을 변인으로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풍부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기회를 가지게 되어 개인역량이 더 높아지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연결망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나누고 나아가 내적인 상처나 갈등을 서로 치유한다고 하였다(Coleman, 1998; 위영은·이희수, 2010). 또한,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관계망과 개인역량이 높을수록 재취업의지가 유의미하게 높고, 진로자본이 진로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가치와 진로대처행동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최은영, 2014).

또 다른 하위변인인 경제적 자본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가구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병부·김경근(2007)은 가구소득과 생활비로 경제활동 능력을 측정하였다. 서혜은(2009)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는 가구일수록 청소년의 진로 이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김준영, 2010).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진로자본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요소이다.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세 개의 변인 중 하나라도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인 보호대상자들은 진로자본의 하위변인 세 영역에서 동시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보호대상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20년의 시간을 폐쇄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본인이 쌓아온 직업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실제 일반기업체에서 이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재성, 2008). 둘째, 보호대상자들은 수감생활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되며, 그로 인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그들 중에는 출소 후 신용불량으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자 보상, 세금이나 추징금 납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본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신용불량 해지를 위한 자금이나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한명미, 2005; 남재성, 2008). 또한, 그들의 재정지원은 상당부분 가족들이 담

당하게 되지만, 지원이 부족 할 경우 매우 큰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영, 2008). 셋째, 보호대상자들은 수감생활로 가족관계는 물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된다. 그들이 스스로 전과자 또는 사회부적응자라는 자기낙인을 찍으면서 생기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합법적인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Bemburg 외, 2006: 남재성, 2008 재인용). 실제 그들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의 가능성도 높고(고성혜 외, 2005), 일반인들이 출소자와 일하기 싫다는 이유가 구직에 가장 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남재성, 2008).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보호대상자의 진로자본은 개인역량,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세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됨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진로자본 회복의 실패는 개인은 물론 사회안전망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보호대상자들의 손상된 진로자본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과정 및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보호대상자 중 출소 후 사회복귀 기간이 1년~ 5년 이내인 보호대상자 10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진로자본 손상에 따른 어려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월 이며, 면접형태는 연구자 2인과 보호대상자 1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연구 참여 철회에 대해 설명하였고, 인터뷰에 동의하는 경우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2 반구조화 질문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질문지는 반구조화 질문지는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차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사전검사 실시 후 면담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학 전문가들과의 분석과 토의를 통

해 내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선정하였다. 질문항목은 연구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논의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Research Participants

Case no.	Sex	Age	Academic Background	Number of Times	Total period of imprisonment	Name of Crime	Period after release from prison
1	F	45	College	1	3 years	Fraud	3 years
2	M	57	High school	2	4 years 6 months	Theft	2 years
3	M	29	High school	1	5 years	Rape	2 years
4	M	60	University	1	3 years	Attempted murder	3 years
5	M	53	High school	1	2 years 6 months	Arson	3 years
6	M	53	High school	4	20 years	Fraud others	4 years
7	M	54	University	1	3 years	Rape	2 years
8	M	60	Middle school	3	7 years	Special theft	4 years
9	M	52	High school	4	12 years	Special rape	5 years
10	F	49	University	1	4 years 6 months	Fraud	3 years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면담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인식한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 면담의 실시는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60~90분간 실시하였으며, 반구조화 질문지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urvey on Semi-structurization

Main Questionnaire
1. Question related to difficulty on career capital damage
- What was the difficulty and fear during imprisonment?
- What was the difficulty regarding work during imprisonment?
- What kind of difficulty did you face when searching for a job after the release from prison? And what kind of limits were self-imposed in terms of employment?
2. Question related to career capital recovery process
- What job training experiences did you have during imprisonment and after your release from imprisonment for the purpose of worklife?
- What difficulties did you face in job searching and worklife?
- What kind of efforts were put in to overcome that?
- What factors helped overcome the difficulties?
3. Question related to career adaptability
- What is the requirement for adapting to worklife?
- What efforts are you making for the purpose of career adaptability?
- What is your terminal objective of work life?

3.3 분석 방법

보호대상자들의 진로자본 회복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담 내용은 전사를 통해 정리하였고, 사례1, 사례2 등의 숫자로 기록하여 개인적인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분석 방법은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확인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전사된 자료들을 계속 읽으면서 자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주제를 찾아내고, 비교와 대조를 반복하였으며, 공통점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연관성을 찾아내고, 공통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범주화하면서 핵심 주제어를 탐색하였다.

4. 연구결과

Table 3. Analysis Results(multiple response)

Classification	Description (frequency)
Negative emotion associated with the damages to career capital and Dysfunctional belief	Fear toward future(10), frustration over unjust treatment(4), anger(4), guilt(10), despair(2), depression(4), frustration(2), anxiety(10), fear(1), shame(1), complaints toward the society(2) Fear toward negative evaluation(7), anxiety over social criticism(5), negative concept about self(8), desire for recognition by others(5), negative belief in social relation(2), unreasonable belief(8), irrational belief(8), self-stigma(1)
Experience of damages to the support system	Limited job opportunity due to public stigma(2), social stigma(10), economic hardship(7), damages to family relation(4), disconnection in social relation(6), bankruptcy in home economy(2), family disorganization caused by divorce and others(5), break in family relation(3), eviction from house(1)
Positive emotional change in the recovery of career capital	Hope toward the future(6), achievement(1), sense of relief(1), positive thinking(8), appreciation(8), satisfaction (7), acceptance(1), confidence(4), comfort(1), happiness(5), rise in self-efficacy(3)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recovery of career capital, influence of family support and Use of social support network	Supply of various information by acquaintance(9), materialistic support by acquaintance(3), help in job seeking(4), positive evaluation by people around(6),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by employer(1), acceptance in the social relation(2), emotional support by friend(3), religious support(3) Emotional support by spouse(3), economic support(7), emotional support by children(5), emotional support by parents(5), emotional support by brothers(3) and positive evaluation by family(3) Participation in the hug job project(5), job

	training(5), provision of meals and accommodation(3), housing support(4), support on the start of business(1), job consultation(10), psychological consultation(3)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covery of career capital	Setting career goal (preparation for start of business(6), making efforts to get a qualification license(2), effort to recover interpersonal relation(8), open attitude toward career expansion(2),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 job(3), patience (1), sustained self-development(3), active and leading attitude (3), positive attitude(4), ownership(1)

4.1 수감생활로 인한 진로자본 손상경험

4.1.1 부정적 정서, 역기능적 신념

연구 참여자 10명의 수감기간은 2~20년으로 평균 6년 4개월이다. 그들은 진로자본 손상 당시의 정서 상태를 두려움, 억울함, 분노, 절망, 우울, 좌절, 상실감, 공포 등 부정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출소 이후 그들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수감 사실로 인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불안, 부정적 자기개념,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의 역기능적 신념이 진로자본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경중에 차이는 있으나 연구 참여자 10명 모두에게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 때의 심정은 ‘아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 때 이제 갈림길에서 많이 이래서 또 다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도 했었죠. [사례 2]

지금 솔직히 우울증 비슷하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중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서 멍해지다가 이제 과거 생각 하면서 혼자 이제 막 계속 우울해 지는 거죠. [사례 3]

내가 뭐 굳이 뭐 그런 거 속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불안감 있잖아요. 교도소에 간다는 그거는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는 이해하는 차이가 상당히 틀려요. 정말 공포죠. [사례 7]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집에서 살게 되고, 일 갔다 와도 혼자 있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래서 우울증이 와서 집에 와 가지고 엄청나게 그 당시에 술도 안 먹었는데 이 걸(손목) 다 자른 거 예요. 칼로... [사례 8]

비합리적인 신념을 보인 경우는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5][사례 9]로 나타났다.

편견이라는 게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출소한 사실을 이야기 하면 저를 좋아했던 매니저도 어떻겠어요. 같이 일을 못하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을 겪어보지 않고, 재판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했던 사람은 무서워요.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무섭죠. [사례 1]

물건이 하나가 빈다. 그러면 너를 의심한다. 이렇게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나의 편견이거든요. 그게 편견이지만 어느 누구나 그런 편견을 안 가지고 생각을 할까? 기록, 그 전과라는 그 기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 안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열이면 아홉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례 2]

처음에 제가 면접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누가 저를 쓰려고 하시겠어요?(웃음) 어떻게 소개로 누가 여기 알려 주셔서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는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좀 그렇잖아요. 심적으로 아실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 드리는 게 나은 거 같아서 말씀 드렸죠.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 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꺼려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9]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 자기 낙인 등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7], [사례 8], [사례 9]에서 연구 참여자 8명이 진술했다.

안 좋아진 건 이제 주눅 들거나, 이제 어디 나서려고 못 하죠. 그니까 제가 한 번 갔다 온 거나,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기도 좀 애매하고 아니면 서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너는 작년에 뭐 했

나? 제작년에 뭐 했나?’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일을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얘기를 잘 할 수 있는데, 저는 거짓말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려면 공백이 5년 동안에 사회에서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좀 두렵죠. [사례 3]

범죄경력조회, 그런 거 조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암만해도 떠오르라고 그러면 암만해도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간에 나는 몇몇한테도 취직하기 힘들죠. [사례 5]

출소한 것을 항상 의식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감을 갖는 거죠. 사실 남들은 잘 모를 텐데.. 얼굴에 출소했다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금방 띄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사례 7]

7만원 줘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에서 잡무를 부르잖아요? 청소, 마지막에 청소하는 거 불러도 10만원 11만원이예요. 그런데 7만원 주는데 그냥 일 했어요. 나는 출소 했으니까. [사례 9]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제한, 타인불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편견 등은 [사례 1], [사례 2],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9], [사례 10]에서 연구 참여자 7명이 진술했다.

사람은 안 믿어요. 전 사람을 안 믿어요. 내가 잘해주면, 자기가 아쉬우면 잘해주겠지만, 그러면 나를 이용할까 싶은 생각도 약간 있고, 어쨌든 사람은 못 믿겠어요. [사례 1]

가끔은 느끼죠. 안 느낄 수는 없죠. 왜냐면은 지금 물건이 이만큼이 있는데, 재고조사 했을 때 이만큼이 남아야 되잖아요. 지금 갖다 주고 이만큼을 빼 왔으면 이게 남아야 되는데 빈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가 모자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나에게게는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사례 2]

출소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항상 그러면서 뭐 등산 다니던 친구들 선배님들 뭐 아우들 뭐 직장은 저기 하면서 동네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다 똑같이 항상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변함없이 이렇게 지냈던 거랑 변함없이 지금도 똑같이 해주시니까. 그게 밝혀지면 편하게 관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출소한 사실을 밝힌다는 건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어요. [사례 7]

전자발찌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도 힘들죠. 제가 다닌 게 공통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 혼자 하는 직업,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찾게 되죠. 요즘은 사람들이요. 저 때문만이 아니라 뉴스에서 뭐 성폭력이 뭐 어디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이런 게 이제 뉴스에 잘 나오잖아요. 또 성폭행 사건들 이런 거. 그러면은 그 표현이 맞잖아요. 사람들 표현이 나 같아도 그런 거 나오면 ‘저 죽일 새끼 저거는 광화문에서 매달아놓고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사람들이...그럴 때 마다 저는 뜨끔하죠. [사례 9]

그 사람들은 저를 알잖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편견과 그런 게 있어서 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명도 안 만나요. [사례 10]

연구 참여자 10명이 진로자본 손상에 따른 부정적 정서 경험은 경중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10명 모두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8명, 타인에 대한 인정욕구는 4명,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제한, 타인 불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10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4.1.2 지지체계 손상 경험

연구 참여자 10명 중 5명이 수감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했다. [사례 4]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내로 그로 인해 가족관계가 훼손되고,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한 취업제한, 가정경제 파탄, 대인관계 단절 등 그동안 쌓아놓은 진로자본이 수감과 동시에 손상되었다고 진술했다.

자기 인생이 이제 저 때문에 몰락 한 거잖아요. 출소 후 보긴 봤는데, 원망을 계속하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가끔 오면 싸움이 엄청 커가지고 경찰이 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극에 달해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10번 이상은 온 거 같아요. 저 거기 있는 동안에 한번도 못 봤어요. 나랑 싫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딱 수감되니까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울음) [사례 1]

걱정 많이 했어요. 처음엔 근데 나오면서 이제 딸내미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가석방이 되다 보니까는 전자발찌를 샀어요. 살인이라 살인 미수는 전자발찌를 차요. 가석방 기간 동안 그러니 자식들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례 4]

암담했죠.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될까 뭐 그런 걱정보다는 사실은 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건이 있으면서 이혼하게 됐고,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애들을 양육을 해야겠다. 애들을 키워야겠다.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다른 거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이들을 못보고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사례 7]

가족은 출소할 때는 이제 가족은 안 보려고 생각했어요. 왕래 안 하고 이제 살라고 마음먹고 나왔어요. 7년 동안 이제 저를 안 찾았으니까. 면회도 없었고요. [사례 9]

가족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5년 전에 사건을 나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또 다시는 돌아오질 않을 판인데... 처음에 딱 출소를 했는데 계속 되감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내가 같이 생활을 못하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야 되겠다 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출소했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게 아니라 가장 먼저 가족들한테 편견이 먼저 있었던 거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상처는 나를 아는 가족들로부터 더 받아요. 자꾸 옛날얘기를 하니까요. [사례 10]

4.2 진로자본 회복과정의 긍정적 정서변화

연구 참여자 10명은 교도소 입소와 동시에 사회적 지지기반이 해체 되었고, 그 중 8명은 본인의 범죄 사실로 인해 새로운 곳에서 진로를 회복해야 함을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진로자본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수감생활 중에는 교도소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 참여와 출소 후에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활용한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즉 개인역량을 쌓는 것을 우선시 하였다.

또한 그들이 진로자본 손상 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정서 즉, 두려움, 억울함, 분노, 절망, 우울, 불안,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안도감, 감사, 만족, 희망, 행복 등 긍정적으로 정서가 변했음을 연구 참여자 10명이 공통적으로 진술 하였다.

제 주변사람들 제가 거기 있던 동안에 저를 지켜봐 주고 괜찮아, 괜찮아 해 줬던 주변분들한테 잘 해지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 좋고 내가 이 만큼 할 수 있었던 게 나를 알았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시선, 조금씩 인정해 주는 시선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런저런 것들이 지금은 솔직히 너무 행복해요. [사례 2]

일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도움도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죠. 일에 대해서 크게 희망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 자체가 희망이죠. 일 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죠. [사례 5]

소박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고 그게 뭐 나이 들어서까지 지인들하고 즐겁게 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행복한 거 같아요. 마음 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생활은 좀 더 어렵고 좀 쪼들릴 수도 있겠는데 마음은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사례 7]

예전에는 큰집에서 살았고, 진짜 땀겨려야 되고 차도 막 두 대씩 애들 아빠랑 저랑 막 중형차 끌어야 되고 이래야지 내 자신의 자존감이 살아났었는데, 지금은 버스타면 어때요?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바뀌었어요(웃음). [사례 10]

연구 참여자 10명 모두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다양한 진로 성공경험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로인해

의사결정을 현실적·합리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지금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 외부사람들은, 회사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밖에 사람들은 인정을 해 줘요. (웃음) [사례 3]

일단은 돈이 급하니까 워크넷, 사람인 이런데 인쿠르트 많잖아요? 막 넣었죠. 집근처로요 일단은 애가 있고 하나까 멀리는 못하고 차를 안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범위에서 막 구하다가 다니게 된 데가 여기가 딱 된 거예요. [사례 3]

그래서 나와서 주변분 들한테 말씀을 듣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된 거고, 지금 뭐 당장 출소하면서 옛날의 과거의 직장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계속 갖고 있었어요. [사례 7]

방황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또 일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생계도 있고, 2~3일 안으로 광고지, 베흥시장 이런 것도 보고 저는 워크넷에 지금도 사체를 안 해요. 계속 거기 등록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워크넷, 사람인, 베흥시장 몇 군데를 갔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또 만약에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바로 또 찾아야 되니까요. [사례 9]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훈련, 경제적 자본 형성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역량 증대와 진로자본 형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바리스타, 제빵 했어요. 그 다음에 떡 공예 과정이요. 바리스타하고 제빵은 필기는 했는데 실기에서 안 되더라고요. 실기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든지 배워놓으면 나중에 써먹지 않을까 싶어서.... [사례 1]

그 때 자격증 뭐 다른 자격증도 많지만, 거기서 딱 6월 달인가? 5월 달에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8월 달에 이제 산업기사 따고 그리고 8월 달까지 저기 하는데 이제 지부장님도 자격증 따고 한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와서 용접 좀 하게 해 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마웠죠. [사례 4]

시골 내려가서 살려면 기술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마땅한 기술이 뭘까 생각했는데 도배가 떠오르네요. 한 달에 도배 한 여덟 건 씩 하면 한 2~30만원 벌어야 겠다 시골에서. 도배 학원에 들어가면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아닌, 법무부 쪽에는 이 허그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 도배 학원을 세 달 마치고, 도배 학원 동기들하고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사례 6]

허그일자리 참여 계기는 나와서 주변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됐죠. 간호조무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명확한 이유가 있죠. 집안에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대안으로 그림 이런 쪽이 낡지 않겠나? 구직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사례 7]

경제적 자본 형성을 위한 노력은 참여자 10명 전체가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와 출소 후 2년 내에 주택을 마련한 사례도 있었다.

제가 한 1년 동안, 올해만 그니까 한 3,000 조금 넘게 벌었거든요. 가장 뿌듯하죠.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쓰고 해보니까 한 2,000정도 조금 남길래, 딸내미도 돈을 많이 내놨어요. 한 1,500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 반 정도 뭐 7,000짜리 집이 있다 그래서 빌라가 하나 있는데 ‘너 이름으로 하고, 네 이름으로 용자를 받아라. 아빠가 갚아 나갈게.’ 그래서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장만했어요. 딸이야 좋죠 뭐 제 이름으로 한다는데... (웃음) [사례 4]

보호대상자들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개인역량을 쌓기 위해 참여한 직업훈련 직종으로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도배기능사, 3D프린팅, 소방기계 기사, 용접산업기사, 간호조무사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8명이 취업을 하였고, 2명이 창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취업자 8명 중 7명은 진로확장을 위한 노력으로 직업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창업자 2명은 진로확장을 위한 노력으로 신 메뉴개발, 영역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망 활용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연구 참여자 10명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배우자, 가족, 고용주, 주변인,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 시스템에서의 공식적 지지는 참여자 10명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또한 주변에서의 일자리제공 등 정보적 지지, 가족이나 주변인 친구들의 물질적 지지, 고용주의 믿음,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인정 등 자존감 지지, 종교적 지지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만나는 친구가 하나가 믿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그 친구랑 의지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우선이지만 지금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지금까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례 2]

어떻게 보면, 가족 내에서는 부모님이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사회생활에서는 사장님이나 사모님께서 멘트 시죠. 왜냐면 정신적인 지주나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의미부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에 대해서 사장님 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다 따라가려고 하고, 보고 배울 것도 많고, 본받아야 된다고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사례 3]

역시나 내가 힘들 때,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는 건 뭐 말 할 것도 없이 가족. 엄마가 0순위죠. 항상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그 다음에 지인, 친구들이죠. [사례 3]

가끔 전화주시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던 최주임님이 공단에서는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 나에게도 어떤 새로운 도전,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사례 7]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혼자였으면 아마 사고치지 않았을까? 좀 더 좌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크게 좌절해가지고 진짜 좀 방황 한다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례 9]

제가 종교에 심취했던 거 같아요. 그럴수록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많이 정화를 시키죠. [사례 15]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고, 내가 지금 힘을 내서 일 하는 것도 가족이고, 가족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일 해봤자 돈 쓸 데도 없는데요. (웃음)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사례 10]

사회적 지지시스템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구 참여자 10명이 모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명 진원이 공 단 직원들과 진로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허그일자리사업 참여5명, 직업훈련4명, 숙식제공보호 3명, 주거지원 4명, 창업지원이 1명, 기타 심리상담 3명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진로자본 회복과정의 진로적응력

보호대상자들은 진로자본을 회복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적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연구 참여자 10명의 출소 이후의 평균 기간이 3년 이내로 그들은 출소 후 직업유지 및 적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노력들을 살펴보면, 먼저 진로목표 관련은 연구 참여자 10명 모두가 진로목표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고, 계획을 세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 일에 대한 자신감, 인내력, 성실성 등이 직업적응에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올 때는 내가 택시를 다시 한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개인택시가 그 때 이제 압수돼가지고 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면허증도 취소됐고, 다시 따서 택시를 해서 다시 개인택시를 사야 되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었어요. [사례 2]

지금 하는 일이 현장 일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또 소방 쪽으로 인력도 없고, 나중을 봤을 때 비전이 있더라고요. 가서 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게 소방 학과 쪽이 아니면 실무경력이 4년 정도 되어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가 있어요. 거기에서 4년 정도는 근무해야죠. [사례 3]

일용직 일을 한 게, 돈 버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현재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한 거죠. 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제일 컸었죠. 자격증을 따면 이제 제 몸값이 오르고 페이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단순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업체 쪽으로 차릴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사례 4]

지금 앞으로는 제 생각은 이제 다른 거는 못할 거 같고 버스는 여기서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개인택시나 하나 사가지고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행도 다니면서..[사례 5]

도배장판만 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인접공사가 자꾸 이제 걸려요. 도배 하다 보면 조명도 뺐다가 해야 하니가 조명 공부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한 세 달, 네 달 동안에 인테리어 전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사례 6]

간호조무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명확한 이유가 있죠. 집안에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대안으로 그럼 이런 쪽이 낡지 않겠나? 구직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사례 7]

이문을 남기기 위한 맛보다 일단 가게를 살리는 어떤 그 프로 정신을 갖고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니까 되긴 되더라 말이에요. 한 열 번 정도 쏟아버렸죠. 떡볶이 판을 알바들 나오기 전에 그렇지만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뭔가는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거 맛있는 떡볶이 가게 맛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했죠. 남들은 그 쉽게 된 거라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아 이제 이것이 바로 내 것이구나.’ 그 때 환희의 미소가 나오는 거죠. [사례 8]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최종목표는 또 그것도 있어요. 그게 중간에 이루어지면 더 감사

한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출소자들 나같이 이렇게 열정은 있으나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출소자들 내가 힘이 된다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눈물 날라고 하네요. [사례 10]

연구 참여자 10명 중 새롭게 진로를 확장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례가 4명이었다. 연구 참여자 전원이 진로확장을 위한 개방적인 태도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며, 진로 성공경험으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들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정서변화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직업생활을 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호대상자의 진로자본 손상 경험과 회복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진로주제를 분석하였다. 진로주제 분석은 개인들이 표현한 생각, 가치, 태도,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 등의 단어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을 깊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김병숙, 2010).

본 연구에서는 직업학적 관점에서 보호대상자들의 진로자본 손상과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외적 변화와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를 가지며, 자기낙인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의 자신감 결여와 소극적인 태도들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역기능적 신념에 의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자신의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불안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Ciarrochi, 2004; 장하연·조용래, 2012)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진술했으며,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사회

관계망을 통한 진로확장, 경제적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 직업훈련 참여와 진로성공 경험 등이 진로자본 증식으로 연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진로자본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로자본의 세 가지 자본 중 문화적 자본인 개인 역량 증식에 집중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출소 후 법무보호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및 훈련 등으로 진로자본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갱생보호서비스와 사회적응력은 정적인 관계로 갱생보호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전영록, 2014).

셋째, 연구 참여자 전원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그들은 배우자, 가족, 고용주, 주변인,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공식적 지지인 법무보호서비스는 진로자본 회복에서의 개인역량 강화, 사회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주거지원이 가족관계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물질적 지지, 일자리 제공 등의 정보적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이 바탕이 되는 자존감 지지와 종교적 지지도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가치와 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며 계속적인 지지, 일관성을 통해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고히 한다고 하였다(홍봉선, 2002). 또한, 출소자의 직업유지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김혜미, 2016)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넷째, 연구 참여자 10명 전원은 진로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였거나, 진로목표 의식이 모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을 세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 진로확장을 위한 끊임없는 탐색 노력, 일에 대한 자신감, 인내력, 성실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 전원은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 진로 성공경험이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로 인한 긍정적인 정서변화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신갑숙(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수용, 긍정적 환류를 통해 긍정적으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자존감 지지를 높게 지각 할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갱생보호서비스와 사회적응 사이에서 직무만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갱생보호서비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사회적응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전영록, 2014).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보호대상자의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 신념은 진로적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하는 부정적인 정서와 역기능적 신념을 희석시킬 수 있는 개별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보호대상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지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담심리직원들의 부족으로 개별심리 치료나 전문적인 정서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보호대상자들이 진로자본을 회복하며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정서 등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바 보호대상자들에게 사회에서의 관심과 지원, 가족, 친구 등 인적 지지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등 인격적 존중, 가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지지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정 복지적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대상자들의 경제적 자본,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허그일자리 사업이 추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보호대상자의 진로적응력을 높이는데 자기효능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연구결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도입과 이를 활용한 적절한 진로상담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 손상과 자녀양육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단의 가족지원사업 또한 확대 운영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호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범죄의 대물림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호대상자 가족들에게까지 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References

- [1] D. K. Kim, W. Il. Jung, Prisoners' Cognition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in Community. Institute of police science, 2010.
- [2] S. H. Kim, B. W. Choi, A Case Study on Humanities Therapy for Resocialization of Released Convicts - Focused on <Self-Happiness Project> Program-, Studies in Humanities, 2012.
- [3] S. M. Shin, Current circumstance and implication of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service on the released prisoner in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model.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2014
- [4] D. K. Kim, Y. H. Lee,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ocial Discrimination among Ex-convicts, Dongguk University social science research, 2007.
- [5] A. T. Beck, Emery, G., R. L. Greenberg,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1985.
- [6] D. M. Clark., A. Wells,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5.
- [7] S. A. Kim, Effects of maladaptive-schema and dysfunctional-beliefs to university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9.
- [8] Cohen, S. & Hoberman, H.,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no. 2, pp. 99-125. 1983. DOI: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9] J. E. Jeong, "Casu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2013.
- [10] S. O. Ha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 for Reliance for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2013.
- [11] E. M. Kim, T. J. Moon, J. W. Rhee, "The Communicative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in Korea: Impacts of Media Uses on", *Trust, Civic Engagement, and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9, no. 3, 2005.

- [12] G. B. Jo, The Effects of Career Capital on Reemployment Will among Middle- and Prime-Aged Job Seeker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vocational face,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2016.
- [13]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 [14] Mayrhofer, W., Meyer, M., Steyrer, J., Maier, J., & Herman, A. "Thick description of career habitus: Agency and structure in career fields", *In Paper presented to EGOS Colloquium Ljubjana, Slovenia, July 4th-6th.*, 2004.
- [15] Y. J. A, "Micro-Politic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In an Elementary School"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09
- [16] E. Y. Choi, "Effects of Baby Boomers' Career Capital on Career Well-Being According to Work Value, Career Coping Behavior",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2015.
- [17] Iellatchitch, A., Mayrhofer, W., & Meyer, M., Career fields: A small step towards a grand career theo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4(5), pp. 728-750. 2003.
DOI: <https://doi.org/10.1080/0958519032000080776>
- [18] Defillipi, Robert, J., Arthur, & Michael, B., "The boundaryless career: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5, no. 4, pp. 307-322, 1994.
DOI: <https://doi.org/10.1002/job.4030150403>
- [19] Duberley, J., & Cohen, L., "Gendering career capital: An investigation of scientific care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6, no. 2, pp. 187-197, 2010.
DOI: <https://doi.org/10.1016/j.jvb.2009.09.005>
- [20] Colakoglu, S. N., "The impact of career boundaryless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The role of career competencies, career autonomy, and career insec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9, no. 1, pp. 47-59, 2011.
DOI: <https://doi.org/10.1016/j.jvb.2010.09.011>
- [21] Coleman, J. S., "Social networks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4, no. 2, pp. 95-120, 1998.
- [22] H. S. Lee, Y. E. Wee, "A Study on the informal learning of the social network" : *Focus on hospit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2, no. 4, pp. 149-173, 2010.
- [23] K. K. Kim, B. B Baek,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apita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3, pp. 101-129, 2007.
- [24] H. E. Sea, Students Self-esteem : how is it affected b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apital,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9.
- [25] J. Y. Kim, H. J. Kim, "The relationship of personal,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s to social exclusion among you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7-4, pp. 27-46, 2010
- [26] J. S. Nam,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Micro-Credit for Settlement of Economic Difficulties of Ex-prisoners and Assistance to Self-support", *Correction review*, vol. 40-9, 2008.
- [27] M. M. Han, "A Daily Life Experience of Ex-offender Correction review",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2005.
- [28] S. Y. Lee, "A study on the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the released prisoner", *Correction review*, no. 38, 2008.
- [29] S H. Ko et al,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juvenile offender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5.
- [30] H. Y. Jang, Y. R. Cho, "The Influences of Beliefs of Excessive Demand for Others' Approval and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on Social Performance Anxiety",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12-3, no. 3, pp. 299-313, 2012.
- [31] B. S. Hong, "Suggestions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discharged prisoners", *Correction review*, no. 14, 2002.
- [32] H. M. Kim, "Factors influencing the job maintenance among released prisoners as means to social adjustment",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6.
- [33] Y. R. Jeon,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 Affecting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s' Socia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14.
- [34] G. S. Sh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Adaptability in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12.
- [35] B. S. Kim, Vocation Counseling Psychology, Seoul: sigmapress, 2010.

박혜경(Hye-Gyeong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 석사
- 2014년 3월 ~ 2017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2000년 9월 ~ 현재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및 직업상담서기보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상담, 다문화

한 순 옥(Sun-Ok Han)

[정회원]



- 2013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 석사
- 2013년 3월 ~ 2015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1993년 5월 ~ 현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 2017년 7월 ~ 현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기술교육원 보호과장

• 2017년 8월 : 직업학 박사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상담, 출소자 진로 상담

박 시 연(Si-Yeon Park)

[정회원]



- 2011년 9월 ~ 2014년 2월 : 경희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09년 8월 ~ 2015년 7월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2~3대 회장
- 2014년 3월 ~ 2017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1994년 6월 ~ 현재 : 선우고용서비스 대표

• 2017년 2월 ~ 현재 : 자유한국당 중랑갑 당협위원장

• 2017년 4월 ~ 현재 : 자유한국당 서울시 대변인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상담, 직업정보